



숙명여대 화학과 金明子 교수

“학문에 여자·남자 따로 있나요”

황금의 연구년에도 대학연구실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숙명여대 화학과 金明子 교수. 70년대 초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대학 강단에 선 金 교수는 25년동안 과학평론·해설·에세이 등 저술활동과 방송출연을 통해 과학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과학기술계의 남녀 성차별은 극복돼야 할 과제라고 말하는 金 교수는 지난해 「여성인력첨단과학기술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이란 정무장관실 학술용역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2월 어느날, 기자는 숙명여대 과학관 김명자교수 연구실을 찾았다. 처음으로 맞는 황금의 연구년을 보내고 있음에도, 김 교수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에서부터, 전혀 한가한 모습이 아니었다.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바쁜 생활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그의 믿음의 결과임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사’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그가 여성이었던 것과 연관된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강단에 서게 된 70년대 초, 우리 대학의 연구여건은 지극히 열악했고, 더욱이 여자로서 1인3역을 하는 일에 나름대로 충실하려 애쓰다 보니, 별수 없이 실험연구에서는 제 몫을 다 할 수 없었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간힘을 쓴 결과가 저술작업이 됐다고 회상한다.

그 과정에서 80년대 초 「과학혁

명의 구조」, 「엔트로피」 등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은 과학사학회 몇몇 선생님들의 인도와 더불어 과학사로의 이정표가 됐다. 그의 저술은 예상 밖의 호응으로 롱셀러가 됐고, 다시 90년대 초 개역판의 발간으로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굳혔다. 시간에 쫓기면서 자신이 번역한 책을 두권 송두리째 다시 번역한다는 것이 웬만한 결심은 아니었노라고 말하는 데서 그의 완벽주의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 보였다.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아끼는 저서로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문제」, 「현대사회와 과학」 등을 꼽고, 최근에는 여기저기 요청으로 여럿이 묶어내는 책들이 나오고 있다.

과학사에 입문한다는 것은 과학

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사회문화 현상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날로 커지고 때로는 충격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사회 각 부문에서 이들 시각과 안목의 중요성도 전례없이 커지고 있고, 그것이 그의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될 것 같다.

저술분야 가운데 화장품에 관한 책들이 나온 것은 자연스레 현재의 실험연구와 맥을 잇게 됐다. 계면활성제의 다양한 계를 만들고 그 물성을 조사함으로써 기능성을 확장하려는 연구 - 여자대학에서 계속 발전시킬 만한 테마가 아니겠냐는 말에, '학문에 굳이 여자, 남자가 따로 있냐'고, 김교수는 웃는다. 김교수는 비단 과학의 원리로서만이 아니라, 여지껏 살아오면서 터득한 모듬살이의 원리에서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비록 하나하나 흩어져 있을 때는 미약하나, 그것이 한데 어울려 서로의 상승효과로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

여성 「과학기술상 진흥상」 수상

김교수는 1970년대 말부터 마스크를 타기 시작했다. 흑백TV시절, MBC의 과학프로를 비롯하여, 91년 KBS 1 TV의 '과학 2001'의 MC를 맡았고, 92년부터는 홍일점 KBS의 객원해설위원으로 장수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평

론, 해설, 에세이 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집필로 언론에서는 과학대중화의 '전도사'나 '대모'니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간 다룬 주제들은 주로 '과학기술과 사회', '환경문제', '여성과 과학' 등. 그간 20여년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진흥상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94년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소질에 맞는 것, 원하는 것을 하며 살도록 예정된 것일까. 학교때 무얼 잘했느냐는 물음에 김교수는 성적표에서 국어, 영어 점수가 제일 높았다고 대답한다. 우등생, 모범생 노릇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어른이 되고 보니 별 것도 아닌 굴레였다고 하는 말에서 그의 인생관의 폭의 변화가 엿보였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는 옛날 만팔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시던 아버지 모습을 가끔 떠올린다. 영문과 교수로 김교수의 대학친학 무렵 예일대 교환교수를 지내셨던 아버지는, 전공선택을 놓고 생각이 오락가락할 때 과학분야를 권하셨다. 그 연유로 서울대 문리대 화학과로 진학하는 길을 걷게 됐는데, 지금 순수화학보다는 다른 분야 활동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화학공부에서 얻은 게 많았노라 말한다. 과학의 논리성에 바탕한 문제풀이 방식은 사물을 보는 데서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에 미리 세워 둔 목표 같은 건 없다. 다만 그때그때 작은 일, 큰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자신

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으려 애쓰는 것, 그것 뿐이다. 사람마다 세상을 산다는 건 한편으로 빛을 쬐아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얼마라도 갚기 위해 베푸는 거라고 그는 생각한다. 나름대로 그렇게 소박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어깨에 지워진 짐이 용량을 초과했다고 그는 느낀다. 그래서 이제 이 일 저 일에서도 차츰 정리를 하고 삶의 여백을 마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과학기술계 성차별 극복돼야

여성 과학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짐작되듯이, 여자로서 과학자의 삶은 남자에 비해 심신이 한없이 고단하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모성(母性) 때문에 여자는 과학자로서 상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몫인 이상, 이것은 거의 숙명적이다. 박사학위 받고 한창 연구해야 할 때 낙오되기 십상이고, 다시 현장에 뛰어들려 하면 이미 저만치 뒤쳐지기 마련이다. 여자가 가정과 전문직을 양립하려면 그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있어야 할 것이기에, 그러나 요즘은 사회가 모성보호를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세월이 좋아지는구나 생각을 한다.

김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활동에 여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원치않고, 남녀를 구분하는 논의는 사라져야 하리라 믿지만, 과

학기술계가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성의 특성상 능력 위주로 선발되어 활동한다는 막연한 인상을 갖고 있으나, 실제의 과학활동의 구조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원천적이고도 내재화된 성차별을 겪고 있다. 고대로부터 과학기술은 남성의 고유영역으로 울타리지워졌고, 그 뿌리깊은 전통은 현대 과학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 과학기술사회가 된 만큼, 사회 발전에서 과학기술계의 남녀 성차별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김교수의 이력서는 그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가를 잘 보여준다. 주요 위원회 활동으로써 과학기술처 관련 6개 위원회(출연(연)종합평가위원, 과학기술 세계화 및 중간진입전략기획자문위원, 2010 과학기술장기계획위원 등)를 비롯하여, 교육부의 중앙교육심의위원, 검정심사위원, 여성정책심의위원 등의 정부관련 위원회를 거치거나 현재 일하고 있다. 그리고 여교수로는 처음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집자문위원을 맡았고, 한국과학사학회 부회장, 과총 이사 등 학·협회 활동도 두드러진다. 시민사회운동과도 연계되어 경실련 환경개발 연구센터 이사,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의 직책으로 짝 짜여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김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작성한 정책보고서도 여럿이다. 교육부의 용역연구로 '과학학(科學學) 관련학과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어 93

년부터 몇개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95년에는 정무장관(제2)실의 학술용역연구로 '여성인력의 첨단 과학기술분야 진출 활성화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 녀달동안 숙대 전산학과 대학원,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을 비롯하여 기초과학지원 연구소, 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통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등의 여성과학자들이 바쁜 틈을 쪼개 정기 조찬 모임으로 또는 밤샘 작업으로 뜻과 힘을 모았던 일은 가슴에 오래 남을 추억거리였다. 과학기술인력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는 시점이라, 그 연구결과가 여성발전장기계획 등에 이런저런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계의 自省·분발” 강조

96년 말에는 과학기술처 과학교육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정부출연연구소 종합평가위원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전문평가소의원회 위원장으로 한국과학재단을 평가하면서 학계, 산업계, 연구소에서 온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융합시키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해볼만한 일이었다고 한다. 작년부터 크리스천아카데미 부설 「바람과 물 연구소」의 프로젝트로 '생명가치와 환경윤리의 학제적 연구'의 책임자로, 금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UN환경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에 연계시키고 있다. 그리고 역점과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방안'의 연구책임자로 산·학·연 각계의 15명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를 이끌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계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바탕 고비에 직면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난관극복의 성패는 타 분야에도 큰 변수가 되리라 보아, 김교수는 과학기술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과학기술계의 자성과 분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신장하고,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계의 힘을 모으고, 정책결정자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국가적 지원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이해관계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비중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역할로 대두됐기 때문이지요”

서울대학 강사로부터 시작해서 강단에 선지 어느덧 25년, 그럼에도 여전히 강단에 서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김교수는 말한다. 하는 일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철저한 사명감과 성실성과 보람이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어울림에서 가장 좋은 결실을 얻어내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김교수가 공동연구와 프로젝트에 어느 누구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런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의 삶에서 고난의 고비를 의연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일에 대한 열정과 거기서 얻는 보람 때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 것임을 그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었다. ㉞